2004년 건설 경기 전망

해외건설, 활기 되찾아 내년도 70억 달러대 수주 전망

- 금년에는 40억 달러 안팎에 머물 듯, 중동 및 아시아 시장에 기대 -

해외건설산업은 1998년부터 본격화된 외환 위기의 여파로 국가 신인도 저하, 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 등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 플랜트 건설 공사의 수주 호조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해외 수주가 전년 대비 40%나 늘어난 6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익성·플랜트 공사 위주로 전환

최근 국내 업체의 해외 수주 구조상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외형 위주에서 탈피해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정착으로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종 면에서는 단순 토목이나 건축 위주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플랜트 공사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더욱이 기술 경쟁력의 경우 시공 기술과 상세 설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은 물론 설계, 구매, 시공 등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 방식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공사에서도 선진 업체와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체의 틀을 짜는 기본 설계 등 핵심 기술 능력은 부족하여 미국, 유럽 등 선진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단순 토목 및 건축 부문은 발주국의 자국화 정책 강화와 현지 업체의 기술력 향상,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과 터키 등 후발 개도국 업체의 추격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금융 조달 면에서는 발주처의 시공자 금융을 요구하는 공사 발주 증가로 입찰 참여시 금융 조달 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발주처의 프로젝트 운영 노하우가 발전하여 외국 업체의 지분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수주 40억 달러 내외일 듯

올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10월 27일 현재 2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주 부진은 세계적인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발주 물량 격감과 이라크전 종식 이후 주변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의 본격적인 수주 활동 재개가 하반기로 집중됨에 따라 수주 물량 확보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사스(SARS) 여파로 아시아 지역 수주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업계의 보수적인 해외 영업 전략,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등에 따른 대형 업체들의 입찰 참여 빈도 감소도 부진의 요인이 되고 있다.

내년 수주액은 70억 80억 달러 예상

하지만 연말까지는 중동 지역의 일부 대형 공사 계약 대기 물량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발한 수주 활동 등으로 13억 달러 내외의 추가 계약 체결이 예상됨에 따라 금년에는 40억 달러 내외의 해외 수주가 예상된다.

내년에는 우리 업체의 과거 연고에 의한 본격적인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참여와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그동안 연기되었던 대형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져 해외 수주가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에서 건설 경기 회복 기대로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참여와 주변 산유국의 플랜트 발주 확대,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주 활성화 등으로 2004년도 해외건설 수주는 올해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70억 8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인프라 분야 발주 지속될 듯

중동 지역은 2000년대 들어 플랜트 건설을 중심으로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이라크 사태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주변 산유국의 일시적인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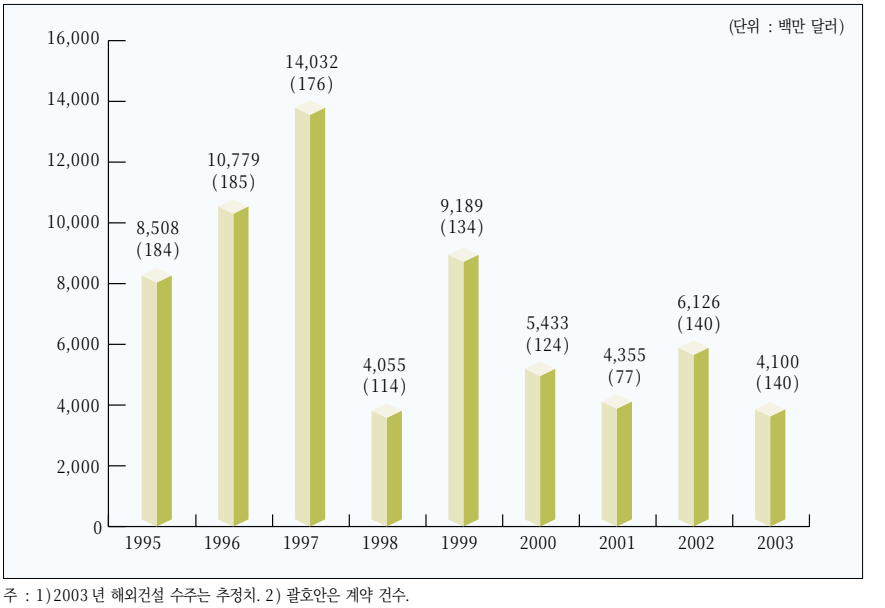
발주 연기나 보류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대형 공사 중심으로 우리나라 업체의 본격적인 수주 활동이 재개되고 있어 내년에도 석유·가스 개발 분야를 위주로 플랜트 공사 및 항만,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분야에서 발주가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국별 유망 발주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이란에서는 우리 업체들이 내년 상반기 입찰 참여 예정인 사우스파 가스전 개발 사업 15 16단계(20억 달러) 수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라크 진출의 전초 기지인 쿠웨이트에서는 우리 업체가 시공 중인 주요 프로젝트들이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어 추가 물량 확보가 시급한데 현재 Aromatic Complex(17억 달러), 올레핀 공장(10억 달러), North Azour 발전소(15억 달러) 등 대형 프로젝트 입찰을 앞두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현재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는 라스라판 컨덴세이트 정제 공장(5억 달러), Q-Chem II 플랜트(8억 달러) 등이 유망하다. 특히, 2006년 아시안게임 개최와 관련된 공항, 도로, 카타르 바레인 간 cause way(18억 달러) 등의 공사 발주도 예상된다. 외국 업체간 경쟁이 심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형 EPC 프로젝트 수익성마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인데 현재 우리 업체들이 3개 유전 지역 대형 가스전 개발 사업(총 250억 달러), 복합화력발전소(15억 달러), 석유화학 시설에 대한 입찰을 추진 중이다.

이라크 전후 복구 참여와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이 초기 단계의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이라크 현지 업체 우대, 토목 분야의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참여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중 우리 정부의 파병이 확정될 경우 과거 이라크 내 공사 경험이 풍부한 우리 업체로서는 세계은행, IMF 등 국제 금융기관이 발주하는 차관 공사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프로젝트 형태의 무상 원조 사업에 일부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플랜트 분야 수주에 대비한 진출 전략 수립이 요구되며, 현 단계에서는 이라크 정부 관료 및 현지 업체 등과 유대 관계 조성, 선진 업체들과의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해외건설 수주 추이



주 : 1) 2003년 해외건설 수주는 추정치. 2) 괄호안은 계약 건수.
자료 : 해외건설협회.

아시아, 중국·베트남 시장 유망

아시아 지역은 금년 들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력 시장 대부분이 건설 경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태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석유, 가스 등 플랜트 공사 발주 확대로 우리 업체의 수주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동남아에서는 우리 업체의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낮은 토목, 건축 분야보다는 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고부가가치 산업 설비 수주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별 유망 분야를 살펴보면,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주택 업체들을 중심으로 투자 개발형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베트남에서는 일본 정부의 엔 차관 공사 발주 확대로 입찰 기회가 상실되고 있으나, 하노이 신도시 개발을 포함해 주택 부문에 진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자금에 의한 도로 공사 수주가 예상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금년 들어 건설 시장 성장률이 2% 미만에 머무는 등 건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현지 업체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건설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이 밝지 못하다.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유전, 가스전 개발에 대한 투자와 이에 필요한 관련 설비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LNG 터미널 건설, 15억 달러 규모의 East Kalimantan East Java 간 가스 파이프라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남미 일부 공사 수주 활동 중

아프리카의 국가 대부분은 후진국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제 규모가 협소하고 재정 상태가 취약하여 건설 시장 규모가 영세한 편이다. 그래서 국제 금융기관 차관 공사나

선진 업체의 자본 유치에 의한 개발형 공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현재 우리 업체들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에 진출이 활발하며 수주 활동 분야는 오일 메이저가 추진하는 대형 석유·가스 개발 관련 프로젝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계 7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에서는 Chevron Texaco, Shell 등의 오일 메이저가 대규모 가스 처리 시설 및 민자 발전소 프로젝트를 발주할 예정이다. 앙골라에서는 남부 해안 도시인 Lobito에 27억 달러 규모의 일일 20만 배럴 정유공장 건설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Chevron Texaco가 수도 루안다 인근에 추진하는 가스 수집 시설 및 LNG 플랜트 건설이 진출 가능한 유망 프로젝트들이다.

중남미에서는 멕시코의 국영 석유회사(PEMEX)가 발주하는 Minatitlan 정유시설 공사, 페루의 Camisea 천연가스 프로젝트(32억 달러) 등이 유망한 사업으로 현재 SK건설, LG건설 등이 수주 활동 중이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뒷받침 이뤄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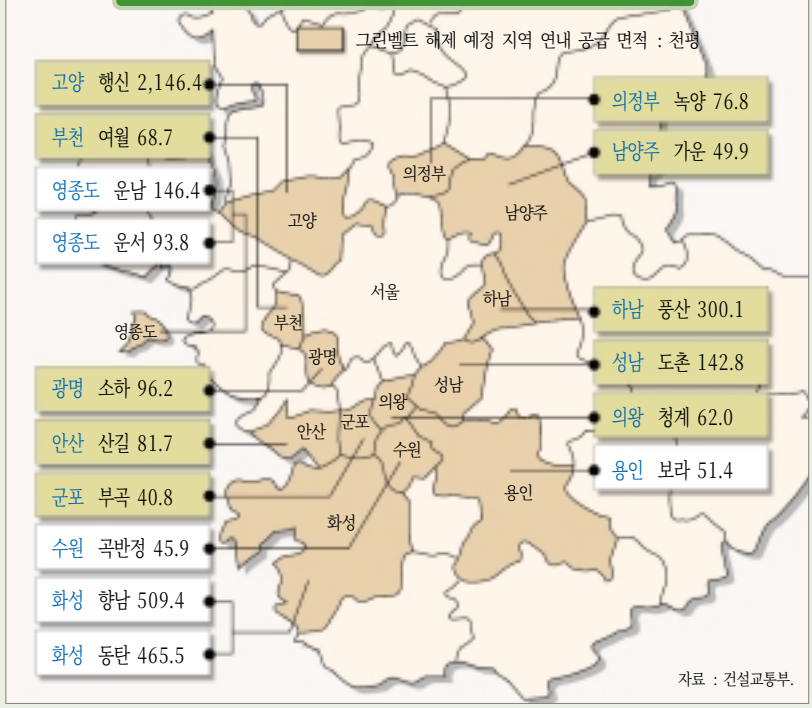
앞으로 우리 업체들의 세계 건설시장 진출은 보다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들은 성장에 한계가 있는 국내 건설 시장보다는 진출 잠재력이 높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해외건설 진출은 건설업계 및 설비업계의 활로이자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우리 기업들은 신시장 개척과 유망 발주처 발굴은 물론, 기술력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준다면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국제화를 선도하는 효자 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것이다.

김종현
해외건설협회 정보기획실장

그래픽 뉴스

연내 공급 예정 수도권 주요 택지



고속철도·기존 교통 수단 비교

세계경제포럼(WEF) 선정 국가 경쟁력 순위

국가	2003 순위	전년 순위	국가	2003 순위	전년 순위
핀란드	1▲	2	미국	2▼	1
스웨덴	3▲	5	덴마크	4▲	10
대만	5▼	3	싱가포르	6▼	4
스위스	7▼	6	아이슬란드	8▲	12
노르웨이	9	9	한국	18 ▲	25